

광주일보 20000호 ...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2만호의 주인공입니다. 광주일보 2만호 발행은 63년간 지역민과 함께 해온 현대사의 발자취입니다. 2만호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실에서 환자를 지키는 의사, 디자이너를 꿈꾸는 대학생, 신문읽기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한 초등학생, 이주여성 정착을 돕는 다문화주부, 5·18의 명예회복과 전국화에 인생을 건 5·18유족회원 등 독자와 같이 쓴 지역민의 기록입니다. 왼쪽부터 심장수술의 권위자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정명호 교수, 조선대 디자인학부 2학년 이영아씨, 광주 진제초등학교 6학년 정민아양, 필리핀 출신 다문화주부 메리암씨, 전 5·18 유족회장 정수만씨, 초등학생부터 다문화 주부·이주노동자도 읽을 수 있는 쉬운 신문, 노약자와 소외계층을 살피는 따뜻한 신문,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신문, 젊은이들의 꿈과 광주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신문으로 거듭 나겠습니다. /나명주·최현배·김진수기자 mjna@kwangju.co.kr

20000호 32면 발행

대통령·여야 대표 축하 메시지 ▶2면
호남, 호남인 여론조사 ▶3·4·5면

광주일보에 바란다 ▶3~7면
50년 애독자 80세 서태석翁 ▶6면



세상을 바꾼 광주일보 특종 ▶12면
불편부당·문화창달 63년 ▶13·14·15면

사진으로 본 현대사 현장 ▶16·17면
내가 본 광주일보 ▶19면

인기 연재물·제작 변천사 ▶20·21면
축하 회초·그림 ▶22면

20000호에 빼곡히 새긴 영욕의 현대사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열겠습니다

1952년 2월 11일은 호남언론 역사에 가장 중요한 날로 기록되었습니다. 호남언론의 상징이자 대표인 광주일보가 '전남일보'라는 제호로 창간호를 발행하고 호남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나선 날이기 때문입니다.

창간호는 타블로이드판 2개 면에 2000여 부가 발행했습니다. '동서남북'이란 단평판에선 촌철살인에 빚대 촌필살인이란 표현으로 날카로운 필봉을 자랑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시(社是)에 해당하는 '우리의 신조'는 ▲공정·정확·신속으로 보도 사명을 완수하고 ▲불편부당한 언론으로서 민족의 단결을 기

하고 ▲문화계발로써 민족문화의 향상을 기하고 ▲민족의식을 진작해 통일과 부흥과업을 촉진한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63년 3개월 17일만인 28일, 광주일보가 지령(紙齡) 2만호를 발행했습니다. 지령은 창간이후 발행한 신문의 호수(號數)로, 2만번째 신문을 독자 여러분앞에 내놓았다는 의미입니다. 호남지역 최초이자 전국 일간지 가운데에서도 12번째에 해당하는 대기록입니다.

지령 1호에서부터 2만호에 실린 방대한 정보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역사적 기록물에 다름 아닙니다. 지역민과 독자 여러분의 파노라마 같은 삶의 단면이 커져 이 살아 숨쉬는 사초(史草)라 할 수 있습니다.

광주일보가 지령 2만호라는 금자탑을 쌓을 수 있었던데는 독자 여러분의 애정 어린 질책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습

니다. 이에 광주일보 임직원은 호남 1등신문에게 부여된 사회 공익(公益)로서의 소임과 책무를 더없이 무겁게 인식합니다. 창간이후 견지해 온 정론직필이란 언론 본연의 책임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나아가 사시에 명기한 대로 지역개발의 기수가 되고 문화창달의 선봉에 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63년이란 세월은 흘렀지만 초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명분과 대의를 중시하는 호남정치 복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명실상부한 문화수도 완성, 민주주의 성지로서의 높은 자긍심을 지니는 것이 지역민들이 추구하는 호남의 모습일 것입니다. 광주일보는 지령 2만호를 맞아 독자 여러분과 함께 민족통일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번영의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다시 한번 창간정신을 되새기며 '100년 신문'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호남인이라서 자랑스럽다” 63%

호남·호남인 여론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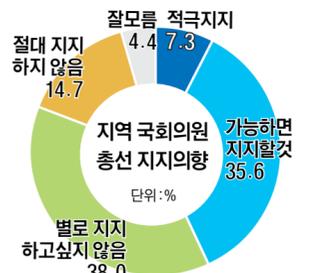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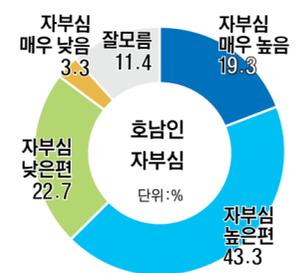
정치성향 진보 57%·보수 35%

광주·전남주민들은 자신이 호남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의 이념·정치적 성향에 대한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보수'보다 많았다.

내년 총선을 10여 개월 앞두고 지역민들은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 의사'보다는 '지지의향이 없다.'라는 의견이 더 많았고, 정당 후보 지지 여부에 대해서도 '지지할 정당 없다.'라는 무당파가 과반에 달했다.

이 같은 사실은 광주일보가 지령 2만호 발행을 맞아 한배서치연구소에 의뢰, 광주·전남 만 19세 이상 남녀 540명을 대상으로 지난 15일 실시한 '호남·호남인' 전화면접 여론조사 결과 확인됐다.

조사결과 호남인이라는 것에 대해 전체의 62.6%가 '자부심이 높다.'라고 응답했다. 26.0%는 '자부심이 낮다.'라고 했다.



자부심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고향이니까'(34.2%)가 가장 많았고, '민주화의 성지이기 때문에'(21.3%) 순이었다.

지역민 10명 중 5명 이상은 광주·전남 지역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56.0%)를 꼽았다.

정치의식 조사에서는 광주·전남에서 정당 독점을 누렸던 새정치민주연합(옛 민주당)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다.

내년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출마할 경우 지지의향을 묻는 질문에 52.7%가

'지지의향이 없다.'라고 답했고, '지지하고 싶다.'라는 응답은 42.9%였다.

내년 총선에서의 정당 후보 지지의향 질문에서도 45.5%가 '잘 모름(지지할만한 정당 없음)'이라고 답해 무당파층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정당 지지의향 응답은 26.3%에 그쳤다.

자신의 이념·정치적 성향이 '중도 진보'라는 응답이 35.5%, '진보'라는 응답은 21.4%, '중도 보수적'은 21.4%였고 '보수'는 13.4%로 나타났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신대학교
광신대학교 2015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6월 8일(월)~19일(금)
문의: 062) 605-1115 광신대학교대학원

생명사랑 전남
Full of Life, Jeollanam

호석같은 남도의 섬에 전남의 미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섬의 정만을 차지하는 전남의 섬은 우리의 소중한 미래입니다. 전라남도는 소중한 휴양자살인 섬들을 주민들과 함께 지키고 가꿔 문화와 테마가 살아 숨 쉬는 섬으로, 세계인의 힐링 명소로, 주민이 잘 살고 여행객이 행복한 매력 있는 섬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라남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주민과 함께 - 아이디어 공모 및 지자체 참여를 통해 지역중심의 섬 가꾸기
이야기가 있는 - 고유의 문화, 역사, 풍광, 식성에 얽힌 스토리텔링 섬 가꾸기
자연과 공존하는 - 해치는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섬 가꾸기
모두가 즐겨찾는 - 서비스와 체험거리, 볼거리가 많아 관광객이 즐거운 섬 가꾸기 - 즐겁게 일하면서 소득을 창출하는 섬 가꾸기

완도 청산도

여수 금오도
신안 증도
여수 하회도

20000